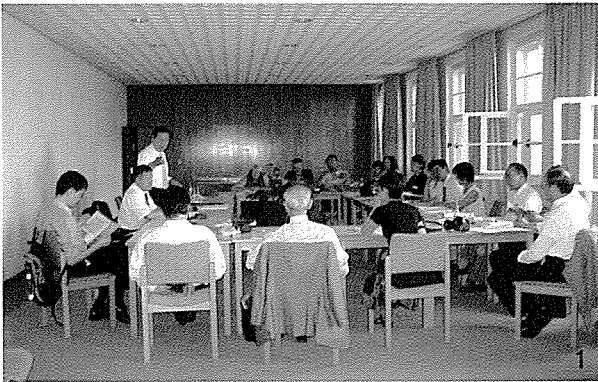


21세기 글로벌 세계 속 사회복지사들의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사회복지사

2004년 12월 26일, 2005년 10월 8일, 2006년 5월 27일..

아태지역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날이다. 남아시아 일대를 휩쓴 쓰나미,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수백만 명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런 재난재해의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약 10억 명의 어린이들이 상상하기 힘든 혹독한 성장기를 보내고 있다. 어린이들의 존엄성을 침해하여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하는 빈곤, 어린이에게서 안전한 가정을 앗아가는 전쟁, 어른들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에이즈... 21세기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인 방향 모색 속에서 탄생한 것이 아태지역의 취약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APPLE(Asia-Pacific Happy Children & Family Echo)」프로젝트이다. 각 국의 사회복지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파트너쉽을 가지고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 세계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005년 9월에 개최한 '제18회 아시아태평양 사회복지사·교육자 대회'에서 APPLE 프로젝트를 발의하였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프로젝트 실행이 결의되었다.

재난구호로 첫 발을 내딛다

지난 2월, 파키스탄 북부의 강진으로 8만의 사망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한 피해지역 가리하비블라에 APPLE 프로젝트를 통해 90명의 사회복지사와 청소년들이 파견되어 구호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이것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슬라마바드에 애플센터를 설립하여 지진피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급식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애플센터가 설립되어 APPLE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행기반 조성 및 아태지역 네트워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재난구호와 사회복지'를 주제로 애플 워크숍 개최

APPLE 프로젝트의 수행기관인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향후 지속적인 사업수행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서울 애플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시아지역 재난구호와 사회복지'를 주제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10여개 국가의 사회복지 대표들이 참석한다. 워크숍에는 애플 프로젝트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와 구호활동 및 국제교류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1. 지난 7월 열린 IFSW 세계대회 총회에 참석하여 APPLE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김성이 회장의 모습.
2. 지난해 10월 파키스탄 북부에 발생한 지진으로 폐허가 된 발라코트 지역, 폐허 위에서 위험스레 놀고 있는 아이들.
3. 지난 2월 파키스탄 북부 가리하비블라에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봉사단 90명을 파견되어 재난구호 활동을 수행하였다. 사진은 난민촌에서 급식하고 있는 모습.